

조사선정 농가 12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험장 수량과 농가평균의 수량 격차(YG_A), 최대생산 농가와 일반농가의 수량 격차(YG_E), 최대생산농가와 시험장 수량격차(YG_F), 최대생산농가와 최저생산농가의 수량 격차(YG_L)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 1-7와 같았다. 수량격차 요인별 변이는 최대생산농가와 최저생산농가의 수량격차(YG_L) > 최대생산농가와 일반농가의 수량 격차(YG_E) > 시험장 수량과 농가평균의 수량 격차(YG_A), 최대생산농가와 시험장 수량격차(YG_F) 순으로 수량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. 잡곡류의 최대생산농가와 최저 생산농가의 수량격차(YG_L) 차이를 분석한 결과 팥 174kg/10a, 기장 160.0kg/10a, 조 226kg/10a, 수수 256kg/10a 순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. 최대생산농가와 일반농가의 수량 격차(YG_E)는 기장은 63.4kg/10a, 수수는 74.3kg/10a, 조 82.5kg/10a, 팥은 70.0kg/10a 차이를 보였다. 또한 최대생산 농가와 시험장 수량격차(YG_F)는 기장은 10.0kg/10a, 수수는 11.0kg/10a, 조 31.0kg/10a, 팥은 6.0kg/10a 차이를 보여 오히려 최대생산농가의 수량성이 시험장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. 또한 시험장 수량과 농가평균의 수량 격차(YG_A)를 분석한 결과 기장은 53.4kg/10a, 수수는 64.3kg/10a, 조 51.5kg/10a, 팥은 64.0kg/10a 차이를 보여, 팥, 수수, 기장, 조 순으로 수량격차를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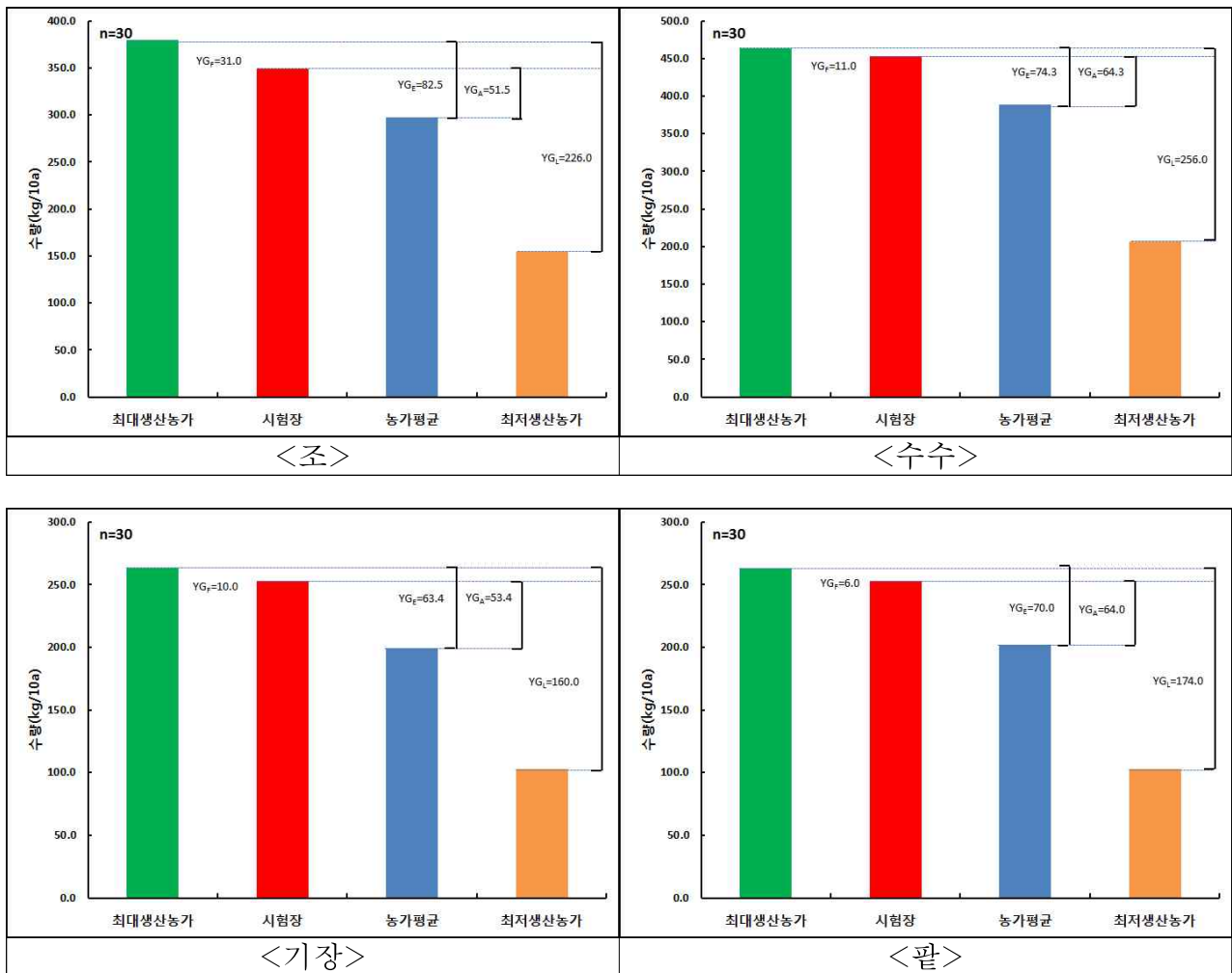


그림 1-7. 잡곡 재배농가의 기술 수준별 수량성 비교